

전남도-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전남 발전 '원팀' 다짐

예산정책협의회서 지역 현안 내년 국비 확보 등 협력기로



전남도와 전남지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합치기로 뜻을 모았다.

전남도는 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역 현안사업과 국비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이개호, 서삼석, 주철현, 김원이 국회의원, 조계원, 문금주, 권항엽, 김문

수 당선인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남도 주요 현안인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전라남도 국립과대학 설립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 15개 사업 추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2025년 국비 확보사업으로 △국립 김 산업진흥원 및 물류단지 조성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 대응 양식어장 구조 개선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확대 지원 등 25개 사업과 지역구 현안 건의 31건을 협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 특별자치도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며 “전남만의 비교우위 자원인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을 기반으로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남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도록 특별법 제정 등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계 전문가와 지역 여론을 들은 결과, 전라남도 국립과대학 신설을 적기에 신속 추진해 전남 전체 의료체계 완결성을 하루빨리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권에서도 이번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화

합과 협치의 정신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선 “인근 가덕도신공항과 TK신공항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어,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2025년 KTX 역사 건립을 계기 삼아, 무안국제공항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린다”고 발언했다.

이 밖에도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재정분권 강화, 국가차원의 출생수당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과 그중에서도 소멸

지수가 가장 높은 전남의 위기는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절박한 과제”라며 “전남특별자치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당선인들이 적극적으로 실행 방안을 만드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당선인들도 전남도 현안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남도는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제22대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미래 100년 전남 행복시대 조성을 위한 원팀으로 결속을 이어가면서,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주대규기자

시, 무등산평두메습지 람사르습지 등록순항

무등산국립공원 내 평두메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 추진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특히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3일 현지를 방문, 평두메습지의 실태와 람사르협약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월 람사르협약 사무국(스위스 글랑)에 평두메습지의 람사르습지 인정을 요청, 현재 사무국에서 인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광주시는 북구 무등산국립공원공단과 협력해 평두메습지의 실태조사 등을 거쳐 환경부에 람사르습지 등록을 건의했다.

임상준 환경차관은 2일 평두메습지를 찾아 정부 차원의 람사르습지 등록의 당위성 등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등록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평두메습지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동생물의 서식공간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무등산국립공원 내 평두메습지(북구 화암동 530 등 14필지/2만 2600㎡)는 묵논습지(오래 내버려 두어 거칠어진 논)로 삼·담비·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식물 약 786종(동물 578종, 식물 208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경관·생태학적 가치와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다.

람사르사무국은 1971년 이란에서 채택된 람사르협약에 따라 지형·지질학적으로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이거나, 생물 서식처로서 보전 가치가 높아 국제적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람사르습지로 인증하고 있다. 현재 172개 국가 2503개소가 등록돼 있으며, 국내에는 광주 장륙국가습지 등 25곳이 있다.

평두메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면 광주시는 장륙국가습지와 함께 명실공히 친환경생태도시와 환경보전도시로서 위상을 한층 드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고광안 행정부시장은 “평두메습지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어서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며 “생태계가 잘 보전되고, 시민이 자연을 즐기고 체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홍석기자

목포서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주간 선포 문체부, 지역 대표 관광콘텐츠 운영

전남도, 걷기여행 봄 조성 앞장

전남도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3일 목포서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주간' 선포식을 갖고 '걸어서 전남 한 바퀴'를 주제로 전 국민적 걷기여행 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보름간 운영되는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주간'은 문체부가 코리아둘레길을 지역 대표 관광콘텐츠로 발돋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도록 기획됐다.

이날 목포생활도자박물관(서해랑길 18코스)에서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 서정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이석호 전남도 관광개발과장, 이상진 목포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서 코리아둘레길 원정대와 자원봉사단이 함께 걷기여행주간을 선포하고 걷기 여행 체험과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선보였다.

지난 2021년 개통된 코리아둘레길은 서해 서해랑길, 남해 남파랑길, 동해 해파랑길, 비무장지대 DMZ 평화누리길 등 총 4천500km에 달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걷기 여행길이다.

전남 구간은 19개 시군 83개 코스로 1천420km에 이른다. 서해안을 따라 걷는 서해랑길은 영광에서 시작해 함평, 신안, 무안, 목포, 영암, 진도, 해남까지 이어지는 40개 코스 687.8km 구간이다.

남쪽 바다와 함께 걷는 남파랑길은 해남과 완도, 강진, 장흥, 보성, 고흥, 여수, 순천, 광양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43개 코스 732.1km에 이른다.

전남도는 코리아둘레길을 전남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토록 하고, 지역 특색을 살리는 데 힘쓰고 있다.

올해 문체부 공모사업에 완도와 해남, 영광, 순천, 광양 등 5개 시·도가 선정돼 4억 5천4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둘레길 안내 센터를 재정비하는 것은 물론 가을철 걷기 축제,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 쓰레기 줍기와 조깅을 함께하는 플로깅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안내판 보수, 풀베기 등 걷고 싶은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코리아둘레길 이외에도 오는 10월 경남과 손잡고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을 지정해 걷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한일해협을 끼고 있는 8개 시도 현직사가 함께 명품 둘레길을 만들어 서로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주대규기자



5.18국립민주묘지 참배 10일 광주 북구청 신규공직자와 청년간부위원들이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며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사들을 참배하고 묘역에 손태극기를 꽂고 있다. /광주북구

광주상인들, 5·18기념주간 '나눔세일' 한다

"나눔·연대의 광주정신 실천"

1980년 5월 광주는 헌혈로 부상자를 치료했고 주먹밥으로 굶주림을 해결하며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켜냈다. 5·18주간 나눔·연대의 광주정신을 실천하고 오월광주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민·관 협력사업이 펼쳐진다.

광주시는 3일 김승재 광주시장인연합회장과 윤준호 공전제과 대표, 마옥천 베비에르 대표, 이창호 양동복개상가 대표, 민경본 용봉동 패션거리 대

표, 김영애 봉선시장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월광주 나눔세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와 상인 대표들은 오월광주의 소중한 역사를 앞장서 실천하는 등 공동체 구현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5·18 기념주간에 나눔세일 행사 참여 △나눔세일 참여업체 홍보 홍보물 지원, 상품구매 촉진 △5·18정신 계승사업 발굴·추진·참여를 위한 상시 협의 등 나눔·연대의 자랑스러운 광주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기로

했다.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공전제과, 베비에르, 양동복개상가, 용봉동 패션거리, 봉선시장 등이다.

나눔세일 협약을 맺은 업체는 5·18기념주간인 15일부터 19일까지 5%에서 최대 18%까지 특별한 행사를 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공직자들부터 참여업체 상품 구매에 앞장서고 홍보를 통해 지원하며 전국에서 오는 오월광주 방문객을 맞이한다.

/고홍석기자

깨끗한 광주 우리가 책임집니다!

광주환경공단

깨끗한 환경으로 시민행복 증진

지구를 구하는 일상생활 분리배출!